

므와레(moire) 직물

옥스포드 직물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시폰이란 직물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라는 의상학과 선생님의 질문도 있었다. 몇 년씩 아니면 몇 십 년을 패션업계에 근무하였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이번에는 므와레 직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므와레란 프랑스어로 "물결 모양의 무늬"라는 뜻으로 물결 모양 또는 파도 무늬 같은 것이 직물 표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아라비아 언어인 하야라(khayyara=즐거운)에서 파생된, 무하야알(mukhayyar)에서 탄생된 것으로, 그 뜻은 "특별히 즐기는 것 또는 특선품"이란 것이라고 한다.

원래 이 무하야알은 아라비아 지방의 양이나 산양의 모피 중에서 가죽의 털이 예쁘게 곱슬(curl)이 되어 있고 물결 모양으로 잘 간추려진 것을 일컫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물결 모양의 모피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직물 표면에 물결 모양의 무늬를 제작하거나 또는 마무리 가공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므와레라 하고 이러한 가공을 므와레 가공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 근래 므와레 가공은 특별히 조각한 금속 롤러를 가지고 직물에 압착시키든가 직물 두 겹을 합쳐 압착하여 표면에 물결무늬를 만든다. 실크나 면직물에 이 가공을 하면 세탁 후에 무늬가 전부 없어지지만, 아세테이트나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같은 열가소성 직물에 가공을 하면 그 무늬는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그로그랭(grosgrain)이나 파유(faille)직물과 같이 위사 방향으로 두둑(rib)이 나타나 있는 직물에 이 가공을 하면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므와레 현상을 특징으로 한 직물로는 태비(tabby)직물이 있다.

므와레는 물결무늬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moire로 쓰지만 watery mark(물결무

늑), open wood grain(목재 무늬), marbling(대리석 무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어로는 므와레 외에 온데(onde)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unda(파도, 바다, 유동)에서 물결의 직접적인 표현이 된 것이다. 북 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이나 해적들이 신으로 모시던 온디느(ondine)와도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

앙고라 산양의 털인 mohair가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많은 호사스런 소재라는 특성과 같이 영어의 moire는 "특별히 즐겨 찾는" "특선품"이라는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기도 한 것에서 그 뿌리가 같은 용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므와레 직물의 용도는 이브닝 웨어, 칵테일 드레스, 가운, 내의, 여성용 코트, 신부 가운, 장식용 등으로 널리 쓰이는 직물이다.♣ (공석봉)